

코로나發 경기침체에... 올 신입채용 기업 19%p 줄었다

(대졸)

2020 신입채용 결산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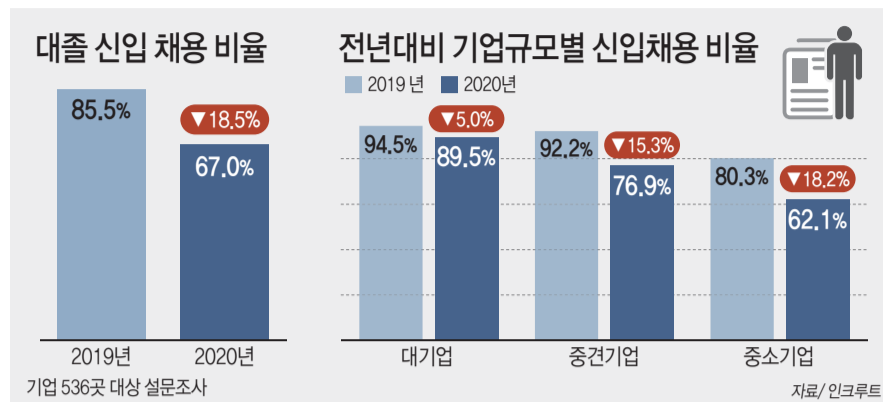
작년 신입채용 86%, 올 67% 불과
5곳 중 2곳 “채용여력 아예 없어”

운수·육상·물류 채용 비율 100%
여행·숙박·항공 57% ‘채용 안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발 경기 침체가 기업들의 신입채용 축소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크루트가 비대면 알바채용 바로 면접 알바콜과 공동으로 기업 536곳 대상 ‘2020년 신입채용 결산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 한해 신입사원을 뽑은 기업 비율이 전년대비 5분의 1가량으로 줄었다.

올 초(2020년 1월 조사) 인크루트가 상장사 831곳을 대상으로 “2019년에 대졸신입 직원을 1명이라도 뽑았는지?”



즉 지난해 실제 채용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전체기업의 85.5%는 ‘그렇다’고 답했다. 기업별로는 ▲대기업 94.5% ▲중견기업 92.2% ▲중소기업 80.3%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업 5곳 중 평균 4곳가량에서 신입사원을 뽑은 것.

그렇다면 올해는 어땠을까? 조사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에 대졸신

입 직원을 1명이라도 채용했는지?” 묻은 결과 ‘그렇다’고 답한 기업 비율은 67.0%에 그쳤다.

기업별로는 기업별로는 ▲대기업 89.5% ▲중견기업 76.9% ▲중소기업 62.1% 순으로 집계됐고, 전년대비 감소 비율은 각각 대기업 -5.0%p, 중견기업 -15.3%p, 중소기업 -18.2%p로 확인됐다.

즉 전년 대비 신입사원을 채용한 기업 비율이 18.5%p 하락, 약 5분의 1가량 줄어들어 대조를 보였고, 동시에 기업 5곳 중 2곳은 올해 신입채용 여력이 아예 없었다는 점에서 팬데믹 채용쇼크 우려를 증명했다.

업종별로는 ‘채용 했다’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운수·육상·물류(100.0%) ▲의료·간호·보건(90.0%) ▲미디어·방송·광고(87.5%) ▲전자·반도체(82.4%) ▲금융·보험(77.8%) 순상위 5개 업종에서 채용이 활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반대로 ‘채용 안 했다’ 비율 순서로는 ▲여행·숙박·항공(57.1%) ▲의류·신발·기타제조(55.6%) ▲식음료(52.2%) ▲에너지(50.0%) ▲건설·토목(43.5%) 등에서 신입채용이 저조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올 한해 비대면 서비스 및 보건산업

이 조명을 받으며 관련 업종의 신입채용 또한 활발했다면 반대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항공·숙박업 및 그 외 일부 업종에서는 신입채용 비율이 절반에도 그치지 못했다

끝으로, 신입채용 규모에 대해서는 “전년과 비교해 채용규모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본 결과 ▲전년대비 줄었다(40.3%) ▲전년과 같다(41.2%) ▲전년보다 늘었다(18.5%) 순으로 응답했다.

특기할 점은 채용규모가 전년대비 줄었다고 답한 기업 중 ‘대기업’이(52.9%) 비율이 ‘중견’ (36.8%) 및 중소기업(38.6%)기업 대비 큰 폭으로 높았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서미영 대표이사는 “상당수 대기업들이 정기공채를 폐지하고 수시채용으로 전환한 까닭과 관련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한국판 뉴딜’ 경제활로 개척, 새 일자리 창출 기회로”

文 대통령,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위기의 시대, 기회 시대로 바꿀 것
뉴딜, 구상 넘어 본격적 실행단계”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저탄소 경제 전환에 속도를 높여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세계와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산업혁신과 그린 경제로 우리 경제의 활로를 개척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한국판 뉴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천명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이하 DDP)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당·정·청 연석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내 삶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을 바꾸고, 지역을 바꾸며, 나라를 바꿔,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길을 열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나의 삶, 우리 지역, 대한민국 미래전환, 한국판 뉴딜’을 주제로 열린 전략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변화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주도해 위기의 시대를 기회의 시대로 바꿀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추진에 대해 “국가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는 강력한 의지이자, 디지털 경제와 비대면 산업 육성 등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일자리 위기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극복하겠다는 비상한 각오였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한 디지털 뉴딜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그린 뉴딜 ▲사람 중심의 포용 사회를 위한 고용·안전망 ▲지역 균형 뉴딜에 대한 10대 대표사업 선정, 160조원 규모의 투자계획 등을 언급한 뒤

“한국판 뉴딜은 이제, 구상의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실행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략회의에서 “우리는 지금 세계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실로 중대한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시대적 대세가 됐고, 코로나 대유행으로 세상이 격변하며 변화의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며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해야 할 당위성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디지털과 저탄소 사회·경제로 빠르게 전환하는 것이 생존의 길이고, 발전하는 길이며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전략”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역량을 살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기초과학연구원

“별세포, 치매 유도”
“치매 원인” 밝혀냈다

기초과학연구원(IBS)이 치매의 원인을 밝혀내 이 같은 성과가 17일 01시(한국 시간) 세계적인 학술지인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게재됐다.

기초과학연구원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 이창준 단장과 전희정 선임연구원 연구팀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뇌과학연구소 류훈 단장 연구팀과 함께 치매 초기에 나타나는 반응성 별세포(별 모양의 비신경세포)에 의한 신경세포 사멸과 치매병증 유도 기전을 처음 밝혀냈다. 반응성 별세포란 비신경세포인 별세포가 뇌질환으로 인해 크기와 기능이 변한 상태를 말한다.

치매는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질병으로, 치매 후기 단계에 신경세포 사멸이 유도되면 치매의 진행을 막을 수 없어, 신경세포 사멸 전 단계의 원인과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뇌가 독성 물질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응성 별세포가 치매 초기에서도 나타난다는 사실에 주목해 반응성 별세포 중 중증 반응성 별세포가 신경세포의 사멸과 치매를 유도한다는 사실을 실험적으로 증명하는데 성공했다.

연구진은 새롭게 개발한 ‘별세포의 반응성 조절 모델’을 통해 ‘경증 반응성 별세포’는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반면, ‘중증 반응성 별세포’는 비가역적으로 신경세포를 사멸시키고 치매를 진행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전희정 선임연구원은 “뇌의 독성물질과 함께 스트레스, 뇌손상, 바이러스 감염 등에 의한 산화 스트레스 증가로 중증 반응성 별세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막으면 치매의 진행을 차단할 수 있다”고 연구 의미를 밝혔다. 산화 스트레스란 활성산소종의 생성과 분해의 불균형으로 인해, 활성산소종이 과다하게 집적된 상태를 말한다.

/채윤정 AI전문 기자 echo@

구분준 고문 독립... LG그룹, 계열사 분리 시동

‘LG상사’ 계열분리 가장 유력
상사 보유 판토스 지분 매각 등
2018년부터 계열사분리 준비

LG그룹이 다시 한 번 계열 분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계열 분리는 주력 사업들과 관계 없는 계열사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그룹 차원에서 마지막 계열 분리라는 분석도 나온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LG그룹은 LG상사와 LG하우시스 등 일부 계열사들을 분리하는 내용으로 이사회를 준비 중이다. 구분준 고문이 구분부 대표 취임 후 미뤄던 독립을 진행하는 것이다.

LG그룹은 그동안 새로운 후계 구도가 확립되면 형제들은 계열사를 분리하며 그룹 경영권을 지켜왔다. 구분준 고문도 조카인 구광모 대표가 회장 자

리에 오르면서 계열 분리를 결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구 고문은 그동안 LG반도체와 LG디스플레이, LG상사와 LG전자에서 대표를 역임하며 성장 발판을 마련한 주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LG 지분 7.72%, 시세로는 1조원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

계열분리가 유력하게 접어드는 곳은 LG상사다. ㈜LG가 지분 24.69%, 시세로는 약 1900억원 수준이다. LG그룹과 거래 비중이 높아 내부 거래 과다로 자주 지적받는 판토스를 주력 계열사로 보유하고 있어서 분리할 명분도 있다.

이미 준비도 어느 정도 진행됐다. 지난해 LG상사가 보유하고 있던 여의도 트윈타워 지분을 ㈜LG에 매각한 게 대표적이다. 앞서 구광모 대표 등 특수관계인들이 2018년 판토스 지분 19.9%를 매각하면서 LG상사(51%)를 제외하고

특수관계인 지분은 없다.

LG그룹은 이런 계열 분리 작업을 조금씩 준비해 왔다. LG상사는 지난해 LG그룹의 본부 격인 여의도 LG트윈타워 지분을 ㈜LG에 팔고, LG광화학빌딩으로 이전했다. 또 구광모 회장 등 특수 관계인들은 2018년 말 보유하고 있던 LG상사의 물류 자회사 판토스 지분 19.9%를 모두 매각했다.

LG하우시스는 그룹 주력 사업인 전자나 화학과는 크게 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분리 대상에 올랐다는 분석이다. 하우스는 LG화학에서 산업재 부문을 분할 설립한 회사로, ㈜LG가 30.07%, 300만6673주로 대주주에 올라 있다. ㈜LG 지분은 시세로 약 2000억원 수준이다.

여기에 실리콘웍스까지 계열분리 대상으로 추정된다. 실리콘웍스는 LG



LG 트윈타워. /김재용 기자

그룹의 팜리스 회사로, ㈜LG가 33.08%, 538만524주를 보유했다. 시가로 약 2600억원이다.

이들을 합치면 구 고문이 보유한 ㈜LG 지분 금액이 1조원에 근접한다. LG그룹 입장에서는 기존 사업에 악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고, 구 고문도 우량 회사들로 새로운 그룹사를 만들 수 있게 된다.

/김재용 기자 juk@